



강진 최제영



곡성 김광휘



광양 김충권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신안 박응식

장성군, '편백나무'로 마을형 일자리 만든다

행정부 마을공방 육성 공모에 '편백목공예 체험 공방 사업' 선정

장성군이 장성 특산물인 편백나무를 이용한 마을형 일자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장성군은 행정자치부가 추진한 '마을공방 육성사업 공모'에서 '편백목공예 체험 공방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마을공방 육성사업'은 행정부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지역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양극화, 고령화, 인구 과소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지자체 및 참여업체가 일감을 제공하고 주민이 시설운영과 생산을 맡는 형식으로 추진된다.

'편백 목공예 체험 공방 사업'은 피톤치드를 풍부하게 함유해 '치유의 나무'로 불리는 편백을 소재로 옛 폐교에 체험 공방을 조성해 운영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특히 지역 자원을 활용해 주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소득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번에 선정된 11개 자치단체의 사업 중 가장 액수가 많은 2억5,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편백 공방은 황룡면 아곡리에 위치한 폐교(옛 월평초등학교 황룡분교) 부지에 100평 규모로 신축된다. 이 공방에서 관광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편백 목공예 기술을 전수하고 공예품을 제작·판매하고 이에 필요한 일자리도 새롭게 만들 예정이다.

특히 이곳은 최근 인기 관광지로서 자리잡고 있는 편백힐링스파와 캠핑시설, 편백유통센터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어 편백목공예 공방이 문을 열면 주변 시설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편백힐링타운에 들르는 가족 단위 관광객 중

상당수가 체험공방을 찾을 것"이라면서 "주민들이 공방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하면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마을공방 육성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고 지역 자생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성군에는 전국 최대 편백 조립지가 조성돼 있다. 축령산은 수령 50년 인편의 아름드리 편백나무 250만 그루가 하늘을 가릴 정도로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편백나무에 피톤치드(나무가 해충과 병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뿜는 자연 항균 물질로 심신 피로를 해소하고 아토피를 치료하는 독특한 향이 특징이다)가 소나무보다 4~5배가량 많이 함유돼 있어 삼림욕만 해도 스트레스 및 우울증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반정모 기자

함평군, '노르딕 걷기운동'으로 주민 건강 다져

몸무게·체지방률 감소·참여자 절반가량 골격근량 증가 효과



함평군은 지난 4월부터 12주간 노르딕워킹 건강교실을 운영해 주민의 건강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노르딕 워킹은 노르딕 스틱을 이용해 정면을 바라보며 상·하체를 고르게 사용함으로써 체중 분산과 무릎관절 부담을 감소시켜 근육 증

가 및 자세교정에 효과가 높아 남녀 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이다.

이번 운동교실엔 주민 28명이 매주 3회 25회에 걸쳐 함평천변길과 수산봉 둘레길을 걸었다. 그 결과 운동을 시작하기 전보다 몸무게와 체지방률이 모두 감소했으며 참여자의 절반가량이 골격근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

박성희 보건소장은 "비만 및 만성질환은 생활습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함평군보건소는 하반기 노르딕 워킹 건강교실을 9월부터 11월 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8월중 회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함평=김광훈 기자

영광군, 찾아가는 지방세 세미나 개최

건전재정 운영 및 사용후핵연료 과세방안 모색

영광군은 지난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영광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지방재정운영의 개선과 지역자원시설세의 정비'라는 주제로 찾아가는 지방세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영광군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세학회, 한국지방세협회와 공동 주관으로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군 지방세 담당공무원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광군 재정현황과 발전방향, 사용후 핵연료 과세 등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김명원 영광군 부군수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춰 고리원전 1호기가 영구정지 되고 설계수명 만료가 예정된 원전의 발전량 감소로 원전소재 지자체의 세수감소가 예상되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에 이번 세미나는 매우 시의 적절하다"라며 "오늘 이 자리가 건전 재정운영과 새로운 세원발굴을 위한 정보 공유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이을러, 영광군의 재정현황에 대한 토론에서는 영광군이 지방세를 신규 발행하지 않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거듭되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과세방안에 대한 토론에서는 사용후핵연료의 발전소 내 저장에 따른 위험성을 감안하여 군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성이 매우 중시되는 만큼 이에 합당한 과세의 당위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 날 토론에 참여한 영광군 김영중 재무과장과 김용원 세정담당관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방세 과세의 정당성에 대해 열띤 주장을 펼쳐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군 재정현안 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새로운 세원 발굴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

보성군, 희망드림 민관협력 공모사업 11개 읍면 선정

6천6백만원 확보...다양한 지역특화사업으로 소외계층 지원



보성군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허정) 주관 2017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공모사업에 11개 읍면희망드림협의체가 선정됐다.

공모사업은 도내 297개 읍면동 중 175개 읍면동이 선정됐으며, 보성군은 12개 읍면이 공모에 11개 읍면 희망드림협의체가 선정돼 6천6

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다. 사업비는 개소당 6백만원씩 지원되며 어려운 이웃 긴급구호와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문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읍면 희망드림협의체는 지역 주요 의제를 발굴, 선정하고 지역사회 주민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구성된

민관협력 네트워크 조직으로 지역 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안보확인 및 밀반찬 지원, 생필품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복지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활동 중인 읍면 희망드림협의체 위원의 노력과 열정이 복지공동체 조성에 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통해 이웃이 이웃을 살피고 돌보는 온정 넘치는 희망보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지난 4월 12개 읍면 희망드림협의체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간 나눔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연계 모금 운동 협약식'을 갖고 지역민이 주도하는 모금 활동, 협의체 전용계좌 개설을 추진하는 등 민관협력을 통해 군민이 행복할 보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보성=안구일 기자

신안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 5개업체 21개 제품 선정

소비자 신뢰 구축

신안군은 6월 28일 2017년 상반기 신안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 심의회를 개최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특산물 5개업체 21개 제품에 대해 품질보증 제품으로 선정하였다.

신안군품질보증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인 신안군의 청정지역에서 생산한 농수특산물 신청 품목을 대상으로 농특산물·수산물·천일염 각 분야별로 1차 실무위원회를 거친 후 품질보증위원회 심사를 통한 검증절차를 통한 엄선된 제품에 대하여 신안군수

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품질보증 신청은 각 분야별 실무위원회(농업기술센터, 해양수산과, 특산물유통사업소)에서 신청 받아 기술수준, 특성과 전망, 품질관리, 생산성, 수익성 등 종합적인 평가를 서류심사를 거쳐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품질보증위원회에서 각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신안군 농수특산물로써 대외적으로 손색이 없다고 인정될 때 최종적으로 품질보증서를 교부하게 된다.

2017년 상반기 신안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 제품으로는 GAP인증을 받은 자색양파, 무화과, 무화과 잼, 밴댕이양념젓갈, 함초전일염 등 5개

업체 21개 제품이 선정되었다. 이번에 품질보증을 받은 21개 제품에 대해서는 농수특산물 출하시 '첨물의고향! 신안' 통합상표 사용을 2년간 허가하고,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게 되며, 대대적으로 홍보·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전국 최고의 청정지역인 신안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특산물을 군수가 직접 품질을 보증하는 상표의 사용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 향상으로 농가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박응식 기자



사람중심·생명중심 교통사고예방 캠페인

당신의 작은 배려가

선진 교통공동체를 만듭니다!

- 운전자를 배려하는 '방향지시등 사용'
- 보행자를 배려하는 '정지선 지키기'
- 통행인을 배려하는 '무단횡단 안하기'



